

## 大韓辨理士會 工所權세미나

-10.27, 審判制度改善方向등-

大韓辨理士會(會長:李俊九)는 10月 27日 特許廳研修室에서 工業所有權制度發展을 위한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이날 發表된 세미나主題 및 演師는 다음과 같다.

1. 化學物質의 用途發明 및 材質變更發明의 不特許問題 <金石中 辨理士>
2. 現行審判制度의 改善方向 <任石宰辨理士>
3. 多項請求範圍의 作成要領<特許廳 金永吉 審判官>

## '83下半年期 主要 國內展示會

'83年度 下半年期中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展示會는 다음과 같다.

## 大韓辨理士會 製圖師養成教育

-10.4~12.14, 製圖師難解消 爲해-

大韓辨理士會(會長:李俊九)는 辨理士事務所의 製圖師難解消를 爲해 올해 처음으로 200萬원의 豫算을 들여 工業高等學校나 工業專門大學 出身者로서 製圖에 素質있는 사람 25名을 選拔하여 製圖師養成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專門講師를 초빙하여 하루 3時間씩 10月 4日 부터 12月 14日까지 實施되는 이번 養成教育의 全過程 履修者에게는 修了證을 發給하고 優秀修了者에게는 辨理士事務所에 採用推薦도 해줄 計劃이다.

또한 同 辨理士會는 辨理士事務所의 既存職員들을 대상으로 補修教育과 함께 辨理士事務所의 事務長등 特許專門要員養成教育도 내년부 터 實施할 計劃으로 있다.

月	展示期間	展 示 會 名	主 催	展示場所
8	1~10 21~9.4	電氣通信機器展示會 國際工作機械 및 産業機械展	電 氣 通 信 公 社 國 際 展 示 企 劃 公 社	KOEX 機械工展示室
9	1~9 2~13 7~30 13~17 25~28 27~10.12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NIEX 83) '83에너지 節約型機資材展 올림픽 商品展 國際醫療機械展 '83 ASTA展 민예품경진대회	特 許 廳 에 너 지 管 理 公 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韓 國 日 報 社 韓 國 觀 光 公 社 中 小 企 業 振 興 公 團	KOEX " 여의도 광장 機械工展示室 KOEX 디자인포장센 타
10	7~13 7~13 11~17 14~28 18~27	'83서울國際玩具博覽會 서울선물용품전시회 第14回韓國電子博覽會 제5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韓國機械展	한국원구공업 협동조합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東 亞 日 報 社 韓國機械工業振興會	KOEX " " 國立科學館 機械工展示室
11	初 旬 豫 定	優秀建築資材展 幼兒教材教具開發展	建 設 部 韓 國 地 域 社 會 福 利 會	機械工展示室 KOEX
12	1~15	全國教育資料展	대 한 교 육 연 합 회	國立科學館

註) 機械工: 韓國機械工業振興會, KOEX: 韓國綜合展示場

## 洪性佐廳長 WIPO總會參席

### —開途國위한 活動強化를 強調—

洪性佐 特許廳長은 崔泰昌 國際協力擔當官과 함께 지난 9月 26日~10月 4日에 제네바에서 열린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總會 및 21個 各種 同盟會議에 參席하고 10月 7日 歸國했다.

이번 WIPO總會에서는 A. BOGSCH事務總長의 82~83會計年度 事業實績報告에 이어 主要議題로 開途國을 위한 WIPO의 活動強化에 대한 論議가 있었다.

이 論議에서는 洪廳長의 發言을 비롯한 開途國의 意見이 反映되어 次期會計年度(84~85年) 事業計劃에서는 開途國을 위한 開發協力事業豫算을 前會計年度(82~83年) 水準보다 20%程度 增額기로 決定했다.

洪廳長은 A. BOGSCH事務總長 및 K. Pfanner事務次長, PORZIO事務次長과의 交換을 겸한 會議을 통해 韓國特許廳 現代化事業을 繼續 支援해줄 것을 要請하는 한편 1985년부터 始作될 第2段階現代化事業計劃推進問題에 대해서도 原則的 合議를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特許協力條約(PCT)加入에 따른 細部事項에 대해서 WIPO의 PCT 局實務者들과 意見을 交換하고 美國, 日本, 오스트리아 등 先進國特許廳長과의 個別會談을 통해 앞으로 工業所有業分野에서 相互協力을 強化하기로 했다.

## 特許廳 人事

### —具一會 抗告審判官등 昇進發令—

特許廳은 9月 28日자로 다음과 같이 昇進人事가 있었다.

副理事官 具一會 抗告審判官  
書記官 河文洙 意匠審査擔當官

### • 第20回 辨理士資格試驗

#### —必須科目 13名合格—

特許廳은 지난 9月 18日 江南區 端草洞 恩光女高에서 第20回辨理士資格試驗中 必須科目試驗을 實施했다. 이번 試驗에서는 애초에 應試

接受했던 854名中 280名만이 실제로 應試했으며 끝까지 試驗을 치른 사람은 222名에 不過했다.

이와 같이 實際應試率이 低調한 것은 受驗者들이 自身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必須科目合格者는 13名으로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또 이들 必須科目合格者 13名은 11月 16日 特許廳에서 選擇科目試驗을 치른다.

#### 必須科目合格者名單

趙龍植	李仁實	李鍾珉	郭尙旭
金正勛	金炳鎮	崔鍾王	崔德龍
李繼宰	崔德奎	金延洙	崔翔鉉
李健柱			

## 先進技術導入 增加一路

### —5月未現在 172件—

今年 들어서 技術導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產業體가 技術優位에 서지 않고는 國際競爭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는 現實을 깊이 認識, 一次的으로 先進技術을 導入, 消化改良하는데 積極性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政府의 技術導入自由化政策에 따라 도입 規制가 풀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企業들이 附設研究所를 設立하여 研究活動을 強化하는 등 先進技術受容態勢를 갖추게 됨으로써 最新技術情報을 分析하고, 自社에 알맞는 도입이 必要한 適正技術을 선별해낼 수 있게될 데에도 기인한다.

지난 5月末 現在 總 172件的 技術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分野別로 보면 電氣·電子가 38件으로 지난해 同期의 20件보다 18件이 늘어난 47%의 가장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다음은 造船·電力으로 지난해 14件보다 6件이 늘어났으며 精油·化學도 28件으로 5件이 늘었다.

下半年에 가서 대체로 技術導入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83年度에는 82年度의 總餘入件數 433件보다 160餘件이 늘어나 600여건을 돌파할 것으로 豫想된다.